칠레 국민국가 형성 시기의 논쟁에 나타난 내셔널리즘*

이 성 훈
서울대학교

이성훈 (2012), 칠레 국민국가 형성 시기의 논쟁에 나타난 내셔널리즘.

초 록 1840년대의 초반은 칠레 지식인들의 변화에 있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들 지식인들은 1820년대와 30년대에 독립이라는 대의를 위해 직접적인 방식으로 참여했고, 독립이후에는 정치적인 갈등 속에서 혼란을 경험해야 했다. 1840년대에 이르러 칠레가 상대적인 정치적 안정을 얻게 되면서, 비로소 문학과 예술이라는 지식인 본연의 지적 도구를 통해 칠레 사회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표현하게 된다. 당대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세례를 받은 이들은 자신들의 지적 능력을 칠레의 새로운 정체성 모색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1840년대는 문학, 교육, 예술, 정치, 사회 조직 등 지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가 진행된 시기로, 이들 지식인들의 역할이 지대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정체성의 모색 과정에서 논쟁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논쟁은 지식인들이 꿈꾸는 새로운 칠레 사회의 모습을 문학이라는 형식을 통해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의 차이를 가장 직접적인 방식으로 드러냈다. 논쟁들 통해 지식인들은 스페인의 식민 유산에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자신들이 꿈꾸는 칠레의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표현해 냈다. 이 논쟁 과정은 내셔널리즘이 작동하는 것으로, 칠레의 국민 국가 형성의 문화적 토대가 마련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1840년대 논쟁 중에서 언어논쟁과 낭만주의 논쟁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핵심어 칠레, 국민국가, 내셔널리즘, 베요와 사르미엔토 논쟁, 낭만주의논쟁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2-B00015).

I. 들어가면서

19세기 초반 라틴아메리카 각 지역에서 진행된 독립 운동은 일련의 신생국 탄생으로 이어졌지만, 이들의 운명은 그리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선거는 단지 전쟁에 불과하고, 자유는 무정부 상태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고문이다”는 시몬 볼리바르의 비관적인 표현은 독립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신생 공화국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혼란을 잘 드러내 준다(Keen 2009, 193). 대부분의 신생 독립국들은 당시 유럽의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여 공화주의 정부와 의회 제도를 채택했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인 민주주의 제도 이면에는 군사적 실권을 장악한 까우디요의 독재나 과두제라는 엄혹한 현실이 존재하고 있었고, 물리력을 지닌 몇몇 까우디요 세력들이 정치와 경제를 전제적인 방식으로 지배하고 있었다. 따라서 공화국의 형식을 띤 신생국에서도 갈등들은 ‘정치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 해소된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독립 이후 공화국이 꿈꾸었던 이상과는 다른 현실에 봉착해야만 했다. 벤자민 킨은 이 시기의 이러한 격렬한 대립의 이면에는 자유주의 대 보수주의 그리고 연방주의 대 통합주의(unitarismo) 등의 사회적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의 땀이 숨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Keen, 195). 보수주의가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이해관계를 드러내는 방식이라면, 자유주의는 식민시대가 남긴 유산을 제거하고 새로운 질서를 건설하고자 했다. 이는 여러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이해관계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공화국의 정치지형을 구성하려는 데서 시작한 대립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베르나르도 오이긴스(Bernardo O’ Higinns)가 독립을 쟁취한 후 일련의 개혁조치를 밀어 부친 칠레의 경우에도 이런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혼란을 경험했다. 오이긴스는 대토지 소유 계층과 교회의 세력을 제어하기 위해 과감한 개혁 조치를 펼쳤는데, 이것이 보수파의 반발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세력 내에도 반대 세력을 만들어 내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오이긴스는 1823년 아르헨티나로 망명하게 되고, 1830년 선거에서 보수파인 호아킨 뿌리에토(Joaquín Prieto)가 승리하면서 칠레 정치는 다소간 안정을 되찾는다. 뿌리에

또의 집권기 동안 정치를 지배한 인물은 그의 각료 중 한명인 디에고 포르탈레스(Diego Portales)였다. 1937년 암살될 때까지 그는 대지주와 소수 과두계층의 이익에 중점을 둔 정책을 펼쳤고, 교회를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했다. 이 시기 보수주의 세력은 과두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1833년 헌법을 통해 집권을 항구화하고자 했고, 자유주의 세력은 점차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에 대항했다(Keen, 214).

이런 칠레의 혼란한 정치 지형은 1841년 마누엘 불네스(Manuel Bulnes)가 대통령이 되고, 1846년 재선되면서 변화를 겪게 된다. 페루-볼리비아와의 전쟁(1836-1839)을 승리로 이끌었던 보수 세력은 전쟁승리와 국내의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일련의 유연정책을 채택했다. 이 시기에는 또한 상업과 광업, 농업의 유래 없는 확장으로 경제 성장이 이뤄졌다. 이 시기의 경제 활성화의 주된 수혜자들은 가파른 땅값 상승으로 인해 이익을 본 대지주들이었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농업부문이 아닌 새로운 경제 영역의 확대로 인해 새로운 경제 주체가 성장했다. 결과적으로 광산, 무역, 금융, 농업과 여타 산업 분야에서 신흥 자본 세력이 등장했고, 이들은 정치를 포함한 사회 전 영역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자유주의적인 사고를 실현하려고 했다. 또한 자본주의의 급격한 성장에 두려움을 느낀 대토지 귀족들로 인해 구시대적인 잔재 역시 공존했다(Keen 2009, 212-213).

이런 공존에도 불구하고 자본가 계층의 강화에 기반한 자유주의 지식인들이 성장하게 되면서, 독립 이후 칠레의 정체성을 모색하는 지적인 고민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흐름이 직접적으로 칠레의 정체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스페인의 문화유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틴아메리카의 지역성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등의 문제의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연관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국민 국가의 형성이 국가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일종의 상상의 공동체 만들기라는 베네딕트 앤더슨의 입장에 따르면, 독립 이후 국가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 역시 내셔널리즘이 작동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독립 이후 국가 형성 과정에 개입해 있는 지식인들이

정치의 영역뿐만 아니라 문화의 영역에서 타자와 구별되는 ‘우리’의 모습을 모색하는 과정이 내셔널리즘의 작동 과정이라면, 1840년대 칠레에서 벌어진 일련의 논쟁은 이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시기 등장했던 논쟁들 중에서 언어논쟁과 낭만주의 논쟁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가 정체성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논쟁의 배경

칠레 역사에서 1840년대는 앞에서 설명한 물적인 기반을 배경으로 문화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시기 중의 하나였다(Stuven V. 1990, 229). 칠레 대학 설립과 같은 다양한 교육 및 문화 기구의 설립, 문학 잡지 창간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시기는 안정된 정치 경제를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문화 활동이 전개되던 시기였고, 지식인들의 역할과 활동 공간 또한 그만큼 확대된 시기였다. 국가 형성과 관련해 이 시기 지식인들의 입장과 활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일련의 논쟁이라고 할 것이다. 이 논쟁을 통해 지식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칠레의 정체성이 구성되는 나름의 방식을 드러낸다. 1840년대에는 ‘언어 논쟁’, ‘낭만주의 논쟁’ 그리고 ‘역사 기술 논쟁’이 칠레 ‘의’ 지식인들 사이에 진행된다.¹⁾ 국가 운영을 둘러싼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배경으로 하여, 지식인들의 논쟁은 문화의 영역에서 국가 정체성 혹은 내셔널리즘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지배 엘리트 계층은 독립 이후 공화제 국가가 만들어지는

1) 언어 논쟁은 1842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진행되었고, 베요가 논쟁에 직접적으로 참가한 것은 이 논쟁이 유일하다. 두 번째 논쟁은 같은 해 7월부터 8월 사이에 진행되었다. 주된 참여자는 사르미엔토와 비센테 피델 로페스, 그리고 살바도르 산뿌엔페스와 후안 호아킨 바예호(Jotabeche) 등이다. 세 번째 논쟁은 같은 해 11월에서 다음 해 1월까지 진행된다. 이 논쟁의 축을 이루는 사람은 사르미엔토와 베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칠레인들이 아니라는 점에서 칠레의 정체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라스마리아의 칠레 국민 문화에 대한 요구에서 보듯이 국가 정체성 문제는 이 논쟁의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Fitzgerald 1966, 4-5).

과정이 야기한 혼란 속에서 자신들의 이상적인 정치 체제를 세우기 위해 투쟁했고, 같은 맥락에서 지식인들은 국민 국가의 내용을 채우기 위해 문화의 영역에서 다양한 논쟁을 진행한 것이다(Stuven, 1990, 230).

앞에서 말한 것처럼 칠레 사회에서 지식인들이 독립된 칠레의 모습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시작한 것은 1840년대로, 보다 정확하게는 마누엘 불네스(Manuel Bulnes)가 정권을 장악하고 난 후부터이다. 따라서 논쟁들을 통해 드러난 다양한 논점들은 국민 국가의 형성이라는 맥락에서 당대 지식인들이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1840년대 진행된 논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논쟁을 이끌어 갔던 두 세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르헨티나의 이른바 1837세대와 칠레의 1842년 세대이다. 아르헨티나의 1837년 세대는 “아마도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다변적이고 자의식을 갖춘 세대”라는 평가에서 알 수 있듯이,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지적인 영역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Velleman 2004, 35). 후안 바우티스타 알베르디(Juan Bautista Alberdi), 에스떼반 에체베리아(Esteban Echeverría), 도밍고 F. 사르미엔토(Domingo F. Sarmiento) 등으로 구성된 이 세대는 리오 데 라 플라타 지역의 독립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시기에 태어났다. 따라서 이들은 독립 이후 아르헨티나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들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그들의 지적 활동의 자양분으로 삼은 세대라고 할 수 있다. 독립 이후 아르헨티나는 연방주의 대 통합주의라는 내부의 정치적인 입장 차이이외에도, 스페인의 전통적인 가치를 옹호하는 입장들과 유럽의 자유주의적인 이상을 수용하려는 입장들이 서로 대립했다. 이 과정에서 1837년 세대의 지도자격인 에체베리아가 유럽 체류 과정에서 학습한 사회주의 이념과 내셔널리즘을 가지고 귀국하면서, 아르헨티나에 새로운 지적 경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Velleman 2004, 36). 에체베리아를 중심으로 한 1837년 세대와 이상주의적인 젊은 지식인들은 1830년대 내내 로사스의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하여 싸우기 시작했다. 로사스 정권과 그의 폭압성은 그들 세대의 논리를 따르면

‘문명과 야만’의 대립 속에서 야만에 속하는 것이다. 로사스 정권에 저항했던 이들 세대는 결국 몬테비데오나 칠레로 망명의 길을 떠나야 했다. 칠레로 망명한 사르미엔토는 칠레 청년 지식인들과 교류하고 칠레 내부의 논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칠레의 국민 국가 형성과 내셔널리즘 확장에 기여하게 된다. 물론 사르미엔토가 구체적으로 칠레의 정체성이라는 맥락보다는 라틴아메리카라는 맥락 속에서 지적 활동을 한 측면은 있지만, 이런 ‘독립주의적’인 태도가 향후 칠레의 젊은 지식인들의 칠레성(chilenidad) 모색에 많은 영향을 준 것은 자명하다.

1837년 세대의 입장에 따르면 한 나라의 제도나 특정 영역의 수준은 전체 사회의 발전의 상태나 단계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르헨티나가 독립 이후 국가로서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정치적 독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문화적인 측면이나 지적인 영역의 독립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스페인의 지적 문화적 전통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스페인의 문학적 언어적 유산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독립의 완성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에체베리아는, “문학에 있어서 스페인적이 되고, 정치적으로 아메리카 적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부조리해 보인다. 아르헨티나의 언어는 스페인의 언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Velleman 2004, 37).

사르미엔토 역시 같은 맥락에서 논지를 전개하는데, 당시 아르헨티나의 로사스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폭력성을 스페인의 문화적 유산과 연결시켜 설명한다. 즉 스페인의 종교 재판이 보여주었듯이, 로사스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야만은 스페인의 유산의 반영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처럼 스페인의 문화적 유산이 라틴아메리카 신생국들의 진정한 발전을 막는 장애물로 작동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의 국민국가 형성을 위해서는 이와 단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스페인어 역시 근대적인 사상들을 표현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죽은 언어라는 입장을 보여준다. “스페인어는 우리들을 교육할 수 있는 단 한 명의 작가도, 우리들에게 유용한 책들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한다(Velleman 2004, 38).

앞서 언급한 것처럼 1840년대 초반은 칠레 지식인들의 변화에 있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1820년대와 30년대에 독립이라는 대의에 자신의 열정을 쏟아 부었고 독립 이후에는 정치적인 혼란에 휩쓸렸던 칠레의 젊은 지식인들은 1840년대에 이르러 상대적인 정치적 안정을 얻게 된다. 이 시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들은 문학과 예술이라는 지식인 본연의 지적 도구를 발견했다(Torrejón 1989, 535). 이들이 문학적 입장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표명했던 1840년대 논쟁의 주인공들로, 이들의 논쟁은 칠레 국민 문학과 칠레 문화의 형성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젊은 지식인들은 주로 당시 강력한 지적 영향력을 발휘했던 안드레스 베요(Andrés Bello)의 제자들로, 이들의 주된 관심은 독립 이후의 칠레 사회와 문화였다. 당대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세례를 받은 이들은 자신들의 지적 능력을 의식의 해방 및 지식과 정치 분야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했다. 따라서 문학, 교육, 예술, 정치, 사회 조직 등 지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가 진행된 1840년대에 이들 지식인들의 역할이 지대했다.

이들 세대의 태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칠레 국민 문학의 필요성을 강조한 1842년 호세 빅토리노 라스파리아(José Victorino Lastarria)의 문인협회(Sociedad Literaria) 창립 선언문이다. 1842년 세대 구성원 대부분이 속해있던 문인협회의 창립선언문을 기점으로 칠레 고유의 것을 이해하고 표현하기 위한 열망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칠레 사회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다(Stuven V. 1987, 62). 이제 이들은 정치 공간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정체성 등의 주제를 가지고 새로운 공적 공간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통해 일련의 논쟁들이 진행되었고, 이 논쟁을 통해 칠레 정체성에 대한 지식인들의 고민이 구체화되었다.

III. 언어 논쟁과 스페인 스페인어의 유산

언어와 철자법을 둘러싼 논쟁은 독립 이후 정치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가, 문화 영역에서 어떻게 변주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²⁾ 국민국가 형성 시기는 두 가지 태도의 대립으로 간주된다. 친 스페인적인 입장과 반 스페인적인 입장의 대립이 그것이다. 즉 라틴아메리카 독립 국가들이 스페인의 흔적을 지우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과, 스페인이 아닌 다른 유럽 국가들의 모델을 지향하면서 스페인의 문화유산과 단절하려는 입장이 그것이다. 이러한 스페인주의(hispanismo)와 반 스페인주의(anti-hispanismo)는 라틴아메리카 국가 형성기의 결정적인 대립요인이었다(Dávila 2003, 8).

19세기 초반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독립이 구체화하면서, 자유주의 성향의 젊은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문화적 층위에서도 독립에 대한 요구가 본격화되었다. 언어 논쟁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인에서 사용하는 스페인어’(이하, 스페인 스페인어)의 규범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라틴아메리카의 지역적인 언어가 갖는 특징들을 인정할 것인가라는 갈등 또한 스페인 문화유산과의 단절이라는 맥락에서 이해 될 수 있다. 즉 스페인 스페인어에 대한 언어적 충성도는 점차 라틴아메리카에서 지역적인 언어 관습이 일정하게 확산되어 가면서 약화되거나 변화를 요구받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립 이후 라틴아메리카에서 ‘새로운’ 언어에 대한 지식인들의 욕구는 신생국들의 개별적인 언어 규범에 대한 요구로 나타났다. 1842년 칠레에서 진행된 언어를 둘러싼 논쟁은 그 배경에 이처럼 스페인 스페인어에 대한 언어적 충성도를 둘러싼 인식의 차이가 있었고, 부분적으로 이러한 충성도를 해체하는 데 기여했다(Torrejón 1989, 541).

스페인 스페인어가 갖는 단일성과 규범성을 옹호했던 입장과 스페인 스페

2) 언어 논쟁은 아르헨티나와 멕시코에서도 나타난다. 아르헨티나의 논쟁과 관련해서 는 박병규(2010),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아르헨티나 언어 논쟁”을 참고하시오.

인어와 차별되는 라틴아메리카적인 언어 관습의 적법성을 주장했던 입장의 차이는, 어찌 보면 식민 유산을 어떻게 바라보고 국민국가 건설 과정에서 개별 국가의 정체성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베요로 대표되는 지식인들은 주로 스페인의 고전적인 작품들에 의존한 범스페인어권 언어 규칙을 지지했다. 이에 반해 사르미엔토로 대표되는 반대 입장은 유럽 문화들의 영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라틴아메리카 나름의 언어 규범을 제안하면서, 스페인 문화와의 차별성을 강조했다.³⁾

‘언어 논쟁’의 시작은 1842년 국립학교(Instituto Nacional)의 라틴어 교사였던 페드로 페르난데스 가르피아스(Pedro Fernández Garfías)가 “스페인어의 대중적인 사용(Ejercicios Populares de la Lengua Castellana)”라는 제하의 글을 발표하면서 부터이다. 이 글에서 가르피아스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지만 교육 수준이 높지 않은 칠레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들을 나열했다. 그는 이러한 말들이 칠레의 언어를 황폐하게 하고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 올바른 언어 규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가르피아스의 견해를 처음 비판한 사람은 사르미엔토였다. 그는 민중이 역사적으로 만들어 온 언어적 전통과 관습을 막는 것은 보수적인 태도라는 입장을 취하는데, 그 배경에는 스페인과의 문화적 단절을 통해 새로운 국가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의 목표가 놓여 있다. 이런 태도는 새로운 언어적 현상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기존의 규범에 집착하는 문법학자들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⁴⁾

구어와 문어를 포함하여 우리 언어에서, 우리 역시 속해있는 민중이 형성해 우리에게 전해준 매우 표현적인 이런 변화나 관용적인 표현들을

-
- 3) 베요가 스페인 스페인어로 대표되는 식민 문화유산의 일방적인 수용을 강조했던 것은 아니라는 관점도 존재한다. 스페인의 문화유산에 기반하여 아메리카적인 문화를 만들어나가자는 점진적인 입장으로, 스페인 유산과의 단절이 아니라 나름의 방식을 통한 완성이자 스페인 유산의 극복이라는 것이다(Dávila 2003, 7).
- 4) 이런 문법학자들에 대한 비판은 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당대 칠레 사회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베요에 대한 비판으로 이해되고 있다(Fitzgerald 1966, 26).

제거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동시에 스페인 작가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민중에게서 받아들여 사용하고 있는 말들을 모범으로 받아들여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민중의 주권은 전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언어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문법학자들은 민중들의 공격을 막고, 관행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보수적인 귀족원 같다. 거친 표현을 빈다면, 그들은 언중의 정체되고 보수적인 집단이다.⁵⁾

그는 스페인의 문화적 유산이라 할 수 있는 스페인 스페인어를 하나의 역사적인 구성물로 간주하고, 독립 이후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민중들의 요구를 수용한 일정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처럼 사르미엔토는 페르난도 가르피아스의 글로 인해 시작된 논쟁을 확장하여 정치의 영역으로 의미를 확장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철자법 또한 민중들의 음성학적 발음에 나타나는 변화를 충실하게 적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사르미엔토의 입장과 가장 대조되는 경우가 바로 안드레스 베요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안드레스 베요는 끼담(Quidam)이라는 필명아래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다.

정치에서처럼 언어에서도 학자들의 조직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필수 불가결하다. 이렇게 해야 마치 말하기 규칙처럼 필요에 부합하는 규칙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규칙의 결정을 민중에게 맡기는 것은 언어의 형성에서 민중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것만큼이나 우스운 일이다.(메르쿠리오 지, 1842년 5월 12일자)

인용문에서 보는 것처럼 라틴아메리카에서 나타나고 있는 언어적 현상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이제, 이러한 변화들을 기술하고 규범을 정하는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라는 보다 ‘정치적인’ 문제로 확장된다. 다시 말해, 베요는 이러한 변화들을 인정하는데 있어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변화를 만들고 결정하는 사람은 민중이 아니라 지식인이라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언어 논쟁은 단순하게 언어의 규범을 누가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한

5) 메르쿠리오지(*El Mercurio*), 4. 27일자. Torrejón 1989, 550에서 재인용. 언어 논쟁에 등장하는 문헌들은 원문 자료에 대한 접근성 제약으로 인해 이차 문헌을 이용하였다.

정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 이후 라틴아메리카에서 나타나는 변화 전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층위의 담론으로 해석될 수 있다.

베요의 입장은 그의 교육 환경과 연관성을 갖고 있다. 어린 시절 식민시기 카라카스에서 스페인과 라틴어 고전 작품들을 읽으면서 성장했던 베요는, 이후 런던에 체류하면서 스페인과 라틴아메리카 출신 지식인들, 그리고 영국의 지식인들과의 교류 속에서 자신의 지적인 경험을 확대했다. 이후 칠레에 정착한 베요는 제도 안팎에서 다양한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지적인 경험을 전수하면서, 문인으로뿐만 아니라 행정가로도 활동했다. 이 시기 그의 입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스페인어 문법 *Gramática de la lengua castellana destinada al uso de los americanos*』라고 할 수 있다(del Brutto 2008, 310-311).

언어학자로서 라틴아메리카의 언어적 혼란을 막기 위한 나름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 저술한 이 책은, 독립 이후 라틴아메리카 문화가 가야할 방향에 대한 그의 태도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즉 베요는 기본적으로 스페인어의 전체적인 통합성을 강조하고, 사전에서 보듯이 고전주의 작가들과, 17, 18세기 스페인 작가들의 스타일에 기초한 범 스페인권 언어 규범을 마련하고자 한다(Moré 2004, 67). 이런 맥락에서는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 모두의 가장 큰 잘못은... 아메리카에서 쓰이고 있는 것의 많은 부분을 침범하고 탁하게 만드는, 만들어지고 있는 신조어들의 탄생이다. 이것들은 스페인어의 구조를 바꾸고 있으며, 스페인어를 수많은 비정상적이고 야만적인 지방언어들로 변화시키고 있다.⁶⁾

이런 태도는 더 나아가 스페인 스페인어의 순수한 보존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나는 우리 조상들의 언어를 가능한 한 순수하게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신이 주신 소통의 수단이자 두 대륙 위에 자리 잡은 스페인

6) Andrés Bello, *Gramática de la lengua castellana*, 9. Torrejón 1989, 543에서 재인용

기원의 수많은 국가들 사이의 형제애적인 결합의 수단으로서 말이다.⁷⁾

즉 그의 주장은 스페인 스페인어가 범 스페인어권에서 유일한 규범이 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모든 스페인어 사용자들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자는 것이다(Torrejón, 544). 이를 위해 그는 라틴아메리카 각 지역의 언어적 관습을 조절하고, 고전적인 스페인어 규범에 따라 언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전을 편찬한 것이다. 물론 그의 입장이 라틴아메리카에서 사용되는 지역적 언어 관습들을 맹목적으로 거부하고 스페인 스페인어를 독점적인 모델로 삼자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이 가능하지만, 그가 스페인어의 해체와 분열을 막고 스페인 스페인어의 규범성을 유지하고자 한 점은 명확하다.

언어의 규범성과 관련해 사르미엔토는 베요의 입장과 매우 다른 입장을 취한다. 베요가 언어와 관련해 보수적이고 귀족적인 태도를 보여준다면, 사르미엔토는 민중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입장을 취한다. 그에 의하면 규범을 만들고 완성해가는 것은 문법학자들이 아니라 민중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르미엔토는 스페인 스페인어가 그랬듯이 스페인어의 라틴아메리카적인 변주들 역시, 라틴아메리카의 주권을 가진 민중들이 역사적 과정을 통해 만들어 낸 문화적 산물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한다(Torrejón 1989, 550).

그의 이러한 태도는 철자법과 관련해 보다 더 과감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문어 형식과 구어 형식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잘 이해했던 그는 문어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문법학자들의 태도를 비판했다.

문법 학자들에게 있어 문자는 단어를 구성하는 소리의 재현적인 기호가 아니다. 반대로 우리들이 말하면서 발화하는 소리들이 문자들의 재현자이다. (...)이렇게 해서, 누군가가 examen이라고 발화할 때 나는 소리를 알려고 하면, 그의 귀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들고 문자가 쓰인

7) Andrés Bello, *Gramática de la lengua castellana*, 8. Torrejón 1989, 543에서 재인용

곳을 보야 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⁸⁾

그는 교육 기회가 적은 민중들이 사용하는 구어들 중 상당수는, 그것이 재현하는 문어 형식과의 음성학적 일치를 잃어버릴 정도로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사르미엔토는 베요로 대표되는 “고전적인” 문법학자들의 과도한 형식주의를 비판한다. 1843년 칠레 대학의 인문학부에 제출한 “아메리카 철자법에 대하여(Memoria sobre Ortografía Americana)”에서 이런 그의 입장은 보다 분명해 지는데, 여기에서 그는 칠레의 독립성을 표현해 내는 수단으로 스페인 스페인어와 차별적인 다른 철자법을 제안한다. 그의 제안에는 발음되지 않는 글자들을 문어에서 과감하게 제거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칠레 민중들의 발음과 표현 방식을 존중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가 주장하는 음성법 체계에서는 단지 /b/ 만을 허용했는데, 이는 문어 규범에 따른 /s/ 와 /θ/ 사이, 그리고 /b/와 /v/ 사이의 인위적인 구별을 없애는 것이다. 또한 음성법 체계에서 세세오(seseo) 현상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메리카 스페인어의 특수성을 표현하고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사르미엔토와는 달리 베요는 음성학적인 측면에서 세세오현상과 예이스모(yeísmo)의 사용을 부정적으로 생각했으며, /b/와 /v/를 구별하도록 제안했다. 또한 x 발음에 대해서도 texto(téhto), explicar(ehplikár)같은 발음을 비판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사르미엔토가 제안한 x를 s로 대체하는 것에도 반대했으며, 보세오(voseo) 현상에도 반대했다(Stuven V. 2000, 186-187).

이처럼 베요는 스페인의 레알 아카데미아(Real Academia)의 규범에 신뢰를 부여하는 반면, 사르미엔토는 이것을 스페인어 절대주의의 도구로 간주한다. 베요가 신조어들이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만 수용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신조어들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내보였다면, 사르미엔토는 반대로 라틴아메리카의 개별 국가 언어들은 이것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8) Domingo Faustino Sarmiento, *Memoria sobre ortografía americana*, 101, Torrejón 550에서 재인용.

취한다. 이는 스페인이 아니라 유럽의 보다 발전한 나라들의 문화와 새로운 사유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르미엔토의 평소 논리와 부합하는 것으로, 신생 국가들은 자신들의 언어에 유럽 국가 문물들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새로운 언어적 형식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Torrejón 1989, 553).

베요는 개혁의 점진성과 혼란을 막기 위해 스페인 스페인어에 기반한 형식의 지속성을 주장한 반면에, 사르미엔토는 언어의 형식과 정치적 변화 사이의 연관성을 주장한다. 즉 정치적 독립을 문화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언어에서도 일정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사르미엔토가 말하고 싶은 것은, 스페인 스페인어로 대표되는 식민 유산에서 벗어나는 것이 일상에서 독립을 현실화하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것이다. 사르미엔토의 이런 입장은 독립 이후 칠레가 국가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내셔널리즘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칠레 민중들의 언어 관습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스페인 스페인어와의 차별성을 주장하는 그의 태도는 아메리카 주 의에서 내셔널리즘 단계로 나아가는 입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 전반에서 스페인과의 차이를 강조하는 입장은 많은 부분 칠레 지식인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내셔널리즘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III. 낭만주의 논쟁과 식민 유산의 극복

1842년 5월에 진행된 낭만주의 논쟁 역시 언어논쟁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다. 낭만주의가 라틴아메리카에 실질적인 문예 사조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개별 국가 충위가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대륙 차원의 동질적인 흐름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Crovetto 1999, 91). 그러나 낭만주의가 식민 유산을 극복하고 라틴아메리카의 정체성을 모색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했다는 평가 역시 존재한다. 즉 낭만주의가 정치적이고 문화

적인 층위의 독립을 완성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했다는 것이다(Grillo Cuello 2006, 24).

이 글에서는 낭만주의의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담론적인 측면에서 이 논쟁을 살펴보면서 당대의 지적인 갈등관계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논쟁은 언어 논쟁과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 망명객인 비센테 피델 로페스(Vicente Fidel López)가 자신이 편집장으로 있던 『레비스타 데 발파라이소(Revista de Valparaíso)』의 1842년 5월호에 게재한 “고전주의와 낭만주의(Clasicismo y Romanticismo)”라는 글에서 시작된다. 이 글에서 피델 로페스는 각각의 사조는 그것이 만들어진 시기의 시대정신을 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상황에서 고전주의를 따르는 것은 형식을 모방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⁹⁾ 피델 로페스와 사르미엔토가 낭만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했고, 안드레스 베요의 지지 하에 살바도르 산푸엔페스를 위시한 그의 제자들이 낭만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¹⁰⁾ 이 논쟁에서 베요는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는 않았지만 젊은 세대의 스승으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다.¹¹⁾

낭만주의 논쟁의 기본적인 내용은 언어 논쟁과 마찬가지로 스페인의 문화적 유산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의 문제였다(Fitzgerald 1966, 5). 즉 낭만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은 칠레의 문화적 독립을 위해, 낭만주의를 통해 기존의 문학적 전통과 결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르헨티나의 경우에서 보

9) 로베르토 빠니아에 따르면 피델 로페스의 글은 상당부분 명확하지 않은 논지를 가지고 있다. 또한 낭만주의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전개시키지 못했으며 완성된 형태의 글이 아니라고 지적한다(Pinilla 1943, 32).

10) 이들은 대부분 문인협회(Sociedad Literaria)의 구성원들이었고, 『세마나리오 데 산 피아고(Semanario de Santiago)』라는 잡지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했다(Torrejón 1898, 534).

11) 베요가 낭만주의에 대해 반대되는 입장을 취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모네갈의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는 베요를 신고전주의적으로 보는 태도는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베요를 아메리카의 1세대 낭만주의자로 간주한다. Emir Rodríguez Monegal, “Andrés Bello y el Romanticismo”, James G. Fitzgerald는 1842년 사르미엔토가 보여준 낭만주의에 대한 이해는 그전에 베요가 보여준 것 보다 수준이 낮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Fitzgerald 1966, 15).

는 것처럼 낭만주의 운동은 그 시작에서 과거와의 단절이라는 태도를 취했고, 사르미엔토는 정신적인 해방이라는 관점에서 낭만주의의 문제제기를 공유했다. 이런 낭만주의 움직임은 당시의 스페인의 작품들을 정전화하던 고전주의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국가 문학을 진작해야 했던 독립 이후의 문화 흐름과 밀접하게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이런 국가 문학에 대한 요구는 칠레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앞에서 말한 라스파리아의 창립 선언문이 이를 잘 표현하고 있다(del Brutto 2008, 317). 이런 칠레 지식인들의 태도는 민중의 언어현상을 적절하게 표기하려는 새로운 철자법의 모색과, 과거 역사를 통해 국가 역사를 구성하려는 일련의 흐름 속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낭만주의를 통해 지식인들이 표현한 스페인 문학 전통과의 단절, 정치·문화적 독립의 의지, 진보적 교리, 국가적 정체성 모색 등은 당대 라틴아메리카 전역에 퍼져 있던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유사했다(Stuven V. 1990, 237). 자유주의자들은 유럽 낭만주의의 내용을 차용하여, 기존의 스페인 문학 전통과 단절하고 독립 이후 꼬리요 계층의 이해에 기반한 새로운 국가 정체성을 구성하고자 했다. 물론 1842년 문학 논쟁이 시작했을 때 유럽에서 낭만주의는 이미 쇠퇴했고, 칠레에서 낭만주의를 지지했던 사람들 역시 낭만주의는 문학적 흐름으로는 소멸되었다고 간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칠레의 낭만주의 옹호자들은 프랑스 낭만주의를 모델로 삼았는데, 이는 언어논쟁과 마찬가지로 스페인과의 단절에 대한 열망과 연결된다(Stuven V. 1990, 238). 라스파리아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면서 이러한 동기부여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들을 지배해왔던 사람들이 세워 두었던 스페인의 과거를 단호하게 거부한다. 또한 우리의 스승들과 모든 문학인들이 국가 문학으로 간주하고 모델로 삼기를 원해왔던 스페인 문학은 우리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길잡이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Stuven V. 1990, 238에서 재인용)

독립 이후 새로운 국가에 어울리며, 구체제적인 과두층과 차별되는 자유주의적인 정치인들과 국민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페인으로 대표되는 모든

과거에 대해 맞서 새로운 국가 정체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프랑스의 낭만주의는 이러한 민주적인 사상들을 통해 지배 엘리트들의 문화적 전통에 균열을 내고자 하는 전략으로 채택된 것이다.

결국 낭만주의 논쟁은 문학적 권위 문제와 함께 정치적인 맥락에서 이해될 가능성이 높다. 이 논쟁을 시작했던 비센테 피델 로페스는 “낭만주의는 문법적이고 수사적인 규칙의 우스꽝스러운 전제주의를 파괴했다”라는 표현을 통해, 이 주제가 갖는 첫 번째 의미를 정리했다. 즉 낭만주의는 고전주의로 대표되는 문학작품의 규율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어서 라틴아메리카에서 낭만주의가 의미하는 바를 사회적 질서와 관련하여 설명한다. “하나의 새로운 의식, 반성, 각성을 유발한다. 이 모든 것은 동시에 낡은 체제가 유지해 온 평온한 지배에 대해서 치명적인 증상이다”라고 말하면서, 낭만주의가 목표로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식민 지배의 유산과 구체제적인 사회 질서의 혁파임을 보여준다(Stuven V. 1990, 238-239).

피델 로페스의 글에 대해 살바도르 산푸엔테스는 『세마나리오 데 산피아고』지 7월 21자에 낭만주의의 과도함을 비판하는 글을 게재한다. 그는 엄격한 의미에서 신고전주의자가 아니며, 스페인에서 생산되는 신고전주의적인 작품들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낸다. 그러나 빅토르 위고의 『루이 블라스』에 대한 조롱 섞인 비판이 보여주듯이, 당대 낭만주의가 보여주는 과도한 변화에 대한 욕구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거리를 보여주고 있다. 제임스는 이러한 그의 태도를 과도함에 대한 거부로 읽어내고 있다. 즉 특정 진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느 진영이든지 양식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다(Fitzgerld 1966, 45). 살바도르 산푸엔테스 역시 낭만주의를 직접적으로 급진적인 사회적 변화와 연결시키고 있는데, 『루이 블라스』에 대한 비판적인 해석에도 잘 드러나 있다.

우리가 아무리 빅토르 위고를 존경한다고 할지라도, 그의 작품에서 최고의 질서가 주는 아름다움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여왕과 미친 듯이 사랑에 빠지고 스페인의 가장 자존심이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도

정신 속에 담을 수 없는 생각과 열망으로 가득 찬 루이 블라스라는 사람을 통해, 정말 평민에 불과한 한 평민에 우리를 연결시킬 때, 우리들은 그에 대해 거부감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Stuven V. 1990. 239에서 재인용)

빅토르 위고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왕과 사랑에 빠진 루이 블라스에 대한 비판적인 이 진술은, 사회의 규범들을 정하고 사회적 계층관계를 만들어 온 전통적인 가치와 질서를 전복하려는 태도에 대한 거부를 드러내고 있다. 즉 낭만주의가 야기하는 단절과 체제 전복적인 사유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는 것이다.

호파베체 역시 낭만주의를 “사회주의적 정신”이라고 비난한다. 이처럼 칠레의 보수적인 지식인들은 낭만주의가 기존의 사회질서를 흔들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나 사회주의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받아들였다. 또한 예문에서 보는 것처럼, 당대의 낭만주의가 명확한 개념 없이 혼란스럽게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풍자적으로 비판한다.

사랑에 빠졌다고요? 당신은 낭만주의적이네요. 사랑에 빠지지 않으셨다고요? 낭만적이시네요. 유행에 맞춰 사신다고요? 정말 낭만적이네요. 그냥 막 사신다고요? 마찬가지로.(Mercurio, 7월 23일자)

이에 반해 사르미엔토는 산푸엔테스의 글이 실린 이후에 7월 25일부터 9개의 글을 통해 피델 로페스의 입장을 옹호한다. 그는 고전주의 엄격함과 낭만주의의 과도함을 비판하고 있다는 산푸엔테스에게 다음과 같이 답한다.

작가가 곧장 자신은 엄격한 고전주의의 가치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쓸모없는 일이다. 낭만주의를 비판하는 것 또한 쓸모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이들 작가들은 낭만주의자들도 아니고, 문학인들도 아니고, 작가들도 아닌, 아무런 의미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7월 26일자)

그는 산푸엔테스가 보여주는 것 같은 태도, 즉 낭만주의의 과도함을 비판하는 행위는 낭만주의에서 창조성과 과도함을 혼동하는 잘못된 입장이라고 비

판한다(Fitzgerald 1966, 47). 유럽의 낭만주의가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을 통해 라틴아메리카적인 맥락에서의 적극적인 수용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낭만주의는 중세 기사도에 주목하면서 가톨릭적인 세계관이 지배하던 사회 내에서 제도적이고 문화적인 단절을 유발하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Stuven V. 1990, 240). 이런 현실에 대한 전복적 기능은 라틴아메리카 당대 사회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사르미엔토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낭만주의 드라마는 문학적 프로테스탄티즘이다. 전에는 의심할 수 없는 유일한 법이 존재했다. 오랜 세기동안의 처벌에 의해 유지되어온. 그러나 켈빈과 루터가 종교의 영역에서 등장했고, 드라마에서 뒤마와 빅토르 위고가 등장했으며, 나중에 이신론과 무신론이 태어나게 된 분파와 이단이 야기되었다.(Mercurio, 1841. 8. 29일자)

이 낭만주의 논쟁은 이제 지배 계층 내에 서로 다른 두 개의 대립적인 입장이 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과두층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질서가 약화되고, 자본가 계층의 성장에 따라 새로운 질서가 모색되고 있다는 것이다. 낭만주의는 문학의 영역에서 기존의 문학전통을 부정하고 새로운 문학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질서를 부정하고 새로운 질서를 추구했던 신흥 세력의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낭만주의 논쟁은 칠레의 정치 사회적인 상황을 반영하면서, “진보와 혁신, 그리고 현상유지와 전통주의자” 사이의 치열한 대립을 표현한다(Stuven V. 1990, 240).

안드레스 베요가 직접적으로 이 논쟁에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다음과 같이 표현할 때 문학과 정치의 영역이 결합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낭만주의자들이 기존의 질서를 전복하고자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낭만주의자들의 주어진 질서를 전복하려는 태도를 방종과 연결시켜 설명함으로써 사르미엔토와 차별성을 보여준다.

문학에서 고전주의자들과 낭만주의자들은 정치 영역의 전통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과 같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전통주의자들에게 있어 과거의 봉인을 갖고 있는 규범들과 관행들의 권위는 훼손할 수 없는 어

면 것이고, 또한 이런 익숙한 길 밖으로 한걸음을 내딛는 것은 건전한 원칙들에 반하는 것인 반면, 두 번째 사람들은(자유주의자들) 쓸모없는 따라서 위대한 장애물 장치에서 벗어나려는 노력 속에서 자주 자유를 방종과 헛갈리고 있다. 고전주의 학파는 전통주의 세력들이 다양한 사회적 계층관계를 나누고 분리했던 것과 같은 마찬가지로의 세심함으로 가지고 장르들을 나누고 분리했다.(...) 반대로 낭만주의자들은 이러한 조건들에 다가가 이것들을 흐트러놓고자 했다.(Stuven V. 1990, 241에서 재인용)

결국 낭만주의 논쟁은 독립 이후 문화와 사회를 전체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일련의 변화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변화를 원하지 않는 보수주의자들은 낭만주의가 갖고 있는 변화에 대한 시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대로 낭만주의자들은 문학에서의 자유로움을 표현하면서, 정치적인 영역에서의 자유로움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했다. 이처럼 낭만주의 논쟁은 고전주의 세력과 낭만주의 세력 사이의 갈등이자, 귀족주의적인 정신과 자유주의적인 정신 사이의 갈등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낭만주의를 둘러싼 갈등이 ‘국적’ 문제로 치환되면서 낭만주의 논쟁이 갖는 생산적인 성격은 일정부분 훼손되고, 칠레 사회의 미래에 대한 문제제기 성격을 잃게 된다.¹²⁾ 즉 낭만주의를 반대했던 몇몇 참여자들이, 외국인들이 칠레의 문학이나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부조리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다시 말해 그들 사이의 내적인 적대감을 공동의 적, 즉 사르미엔토로 대표되는 아르헨티나인이라는 외부의 대상으로 돌리면서 갈등의 수위를 조정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초기의 낭만주의 논쟁이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은 일정하게 그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이 논쟁은 낭만주의와 고전주의라는 개념을 가지고 시작되었지만, 문학 논쟁의 측면에서 보면 그리 성공적이지는 못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12) 호세 마리아 누녜스(José María Nuñez)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는 아르헨티나의 경우를 칠레에 대입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사르미엔토의 국적 문제를 제기한다(Fitzgerald 1966, 36-38).

많은 부분 칠레 지식인들은 아르헨티나 낭만주의가 갖는 문제의식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주로 낭만주의가 갖는 과도한 표현과 사회적 질서의 전복에 주목하면서 그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이다(Fitzgerald 1966, 51).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문학적 전통의 극복과 현실 정치에서 지배 질서를 어떻게 전복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던졌다는 점에서, 향후 국민 국가 형성과 관련한 토대를 마련한다고 할 수 있다.

IV. 결론

독립 국가 건설과 관련하여 식민시기에 이미 내셔널리즘이 형성되어 있어서 독립과 이후 독립국가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베네딕트 앤더슨의 입장은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오히려 내셔널리즘은 독립 이후 꼬리오요 계층에 의해 가공되고 내면화된 기제라는 평가가 보다 합리적이다. 이처럼 국가를 구성하는 내재적인 본질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성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유주의 지식인들이 독립 이후 공간에서 진행해온 언어와 낭만주의를 둘러싼 논쟁은 ‘국가적인 것’을 어떻게 구성할 것을 둘러싼 갈등으로 내셔널리즘이 작동하는 과정인 것이다(이성훈, 111-115). 즉 독립시기 ‘patria’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이 태어난 곳에 대한 귀속감을 갖고 있던 라틴아메리카 각국이 ‘nación’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바로 내셔널리즘의 구현 과정이라는 것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내셔널리즘이 강화된 시기가 독립이전이나 독립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산업 발전에 따른 자본가 계층의 성장과 이에 기반한 자유주의 지식인이 등장했던 시기라고 한다면, 칠레에서 살펴본 언어와 낭만주의 논쟁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명백하게 칠레라는 문맥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유럽의 문화적 유산에서 벗어나 아메리카가 갖고 있는 다양한 조건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어 논쟁에서 칠레의 구체적인 음성학적 조건들을 통해 스페인과 다

른 규범을 만들려는 시도는 이런 현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 것이다. 낭만주의 논쟁 역시 기존의 사회 질서를 전복하고 새로운 질서를 모색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국가 형성을 꿈꾸던 지식인들의 태도와 밀접하게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박병규(2010),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아르헨티나 언어 논쟁」, 『스페인어 문학』, 54호, pp.215-236.
- 이성훈(2008), 「라틴아메리카 국민국가와 정체성 형성과정 연구 시론」, 『이베로아메리카연구』, 19권, 1호, pp.103-123.
- Canedo, Alfredo(2004), “Bello y Sarmiento: discusión en torno a la Lengua,” *Espéculo*, No. 28. <http://www.ucm.es/info/especulo/numero28/bellosar.html>
- Crovetto, Pier Luigi y Raúl Crisafio(1999), “España en la polémica entre Domingo Faustino Sarmiento y Andrés Bello sobre el idioma,” *Lingua e literatura ispanoamericana*, Universidad de Génova, pp. 91-99.
- Dávila, Luis Ricardo(2003), “Fronteras intelectuales en la formación del pensamiento hispanoamericano del siglo xix,” *Bitácora-e*, <http://www.saber.ula.ve/handle/123456789/18345>.
- del Brutto, Bibiana Apolonia(2008), “La fundación de una lengua: las polémicas en Chile: Andrés Bello, José V. Lastarria y D. F. Sarmiento,” en Horacio González(comp.), *Beligerancia de los idiomas: Un siglo y medio de discusión sobre la lengua latinoamericana*, Buenos Aires:Ediciones Colihue. pp. 310-311.
- Fitzgerald, James G.(1966), *Bello, Sarmiento, and the Polemic of 1842*, Tesis de Maestría, University of Wyoming.
- Grillo Cuello, Andrés David(2006), *Las bellas artes y la academia en Chile:Itinerario de una disidencia (1842-1928)*, Tesis de Licenciado, Facultad de Artes, Univ. de Chile.
- Keen, Benjamin & Haynes, Keith(2009), *A History of Latin America, 8th ed.*, New York: Houghton Mifflin Harcourt Publishing Company.

- Monegal, Emir Rodríguez(1953), “Andrés Bello y el Romanticismo,” *Número*, No. 23/24, http://letras-uruguay.espaciolatino.com/ermonegal/andres_bello_y_el_romanticismo.htm
- Moré, Belford(2004), “La Construcción ideológica de una base empírica: selección y elaboración en la gramática de Andrés Bello,” en José del Valle y Luis Gabriel Stheeman (Eds.). *La batalla del idioma: la intelectualidad hispánica ante la lengua*. Frankfurt/Madrid: Verveuert/Iberoamericana.
- Pinilla, Noberto(1943), *La polémica del romanticismo*, Buenos Aires: Editorial Americalee.
- Stuven V., Ana María(1990), “Polémica y cultura política chilena, 1840-1850,” *Historia*, Vol. 25, pp. 229-253.
- Stuven V., Ana María(2000), *La seducción de un orden: Las elites y la construcción de Chile en las polémicas culturales y políticas del siglo xix*, Santiago de Chile: Univ. Católica de Chile.
- Stuven V., Ana María(1987), “La generación de 1842 y la conciencia nacional chilena,” *Revista de ciencia política*, Vol. IX, No.1, pp. 61-80.
- Torrejón, Alfredo(1989), “Andrés Bello, Domingo Faustino Sarmiento y el castellano culto de Chile,” *Thesaurus*, Vol. XLIV, No. 3, pp. 534- 558.
- Velleman, Barry L.(2004), “Antiacademicismo lingüístico y comunidad hispánica: Sarmiento y Unamuno,” en José del Valle y Luis Gabriel-Stheeman (eds.), *La batalla del idioma: la intelectualidad hispánica ante la lengua*, Madrid: Iberoamericana-Verveuert.

이 성 훈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anselmus@snu.ac.kr

논문투고일: 2012년 2월 28일
심사완료일: 2012년 4월 11일
게재확정일: 2012년 4월 16일